

초고속 성장 화제의 지역 중소기업

‘오이솔루션’ 공장 준공… 테크노파크 성공 모델

광주 유일 ‘월드클래스 300’ 光제품 생산

광주 유일의 ‘월드클래스300’ 지정 기업인 ㈜오이솔루션이 공장을 준공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으로 창업, 10년 만에 자가공장을 건립하면서 광주테크노파크 기업 지원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4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오이솔루션은 이날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 1만㎡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세계적인 광송수신모듈 생산업체로 성장한 오이솔루션은 2003년 삼성전자 및 AT&T 출신 8명이 창업한 뒤 2005년 8월 광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해 본격적인 시험생산 및 양산에 들어갔다. 그해 매출 8000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 8억원, 2007년 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창업 10년만에 매출 684억원(2013년 기준) 및 280명 고용인원의 강소기업으로 우뚝 섰다.

2012년 5월엔 광주 최초(유일)로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2월엔 공모청약 1253 : 1의 경쟁률로 코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 기간 창업보육부터 인프라와 R&D, 마케팅 등 끊임없는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제공했다.

박용관 공동대표는 “향후 광송수신모듈 ‘글로벌 탑5’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1년 세계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겠다”며 “광전송제품과 스마트·광링크 제품 등 품목 다변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세화아이엠씨’ 15년만에 코스피 직상장

타이어 금형 주력… 매출액 80% 수출

경기 위축과 불황을 딛고 창립 10여년만에 당당히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지역 기업이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와 업계 등에 따르면 타이어 금형과 제조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세화아이엠씨(회장 류희열)가 지난 달 주권 상장 예비에서 상장 적격 판정을 받고 연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지역 기업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직 상장되는 경우는 지난 1999년 화천가공 이후 15년만으로 전체 유가증권시장에서 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되고 시가총액은 더더욱 낮은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99년 설립 이후 타이어 금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세화아이엠씨는 지난해 매출이 22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3분기까지 매출이 1800억원에 이르는 ‘알짜 기업’이다. 현재 미주·유럽·아시아 전역에 해외 사업장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유동환 외 7인이 47.86%(공모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모집 및 구주매출을 통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을 계기로 회사측은 “태국과 터키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회 환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서

상무 승진자 1명 나왔다

삼성그룹이 4일 부사장 42명, 전무 58명, 상무 253명 등 총 353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자 규모는 지난해(476명)보다 123명(25.8%)이나 줄었다. 주력인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등을 반영해 승진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임원 승진자는 165명으로 지난해(227명)보다 27.3% 감소했다. 그러나 높은 성과를 올린 메모리사업부는 승진자가 22명으로 지난해(20명), 2012년(14명)보다 늘었다. 생활가전부문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는 제품기술 분야에서 상무 승진자 1명이 나왔다.

실적 부진으로 고전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승진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사업부에서는 상담역 등으로 2선 퇴진하거나 다른 계열사로 전출되는 임원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계열사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효성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4일 효성의 조현상 산업자재PG장 겸 전략본부 부사장(가운데)이 서울 마포구 주민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효성은 이날 10kg들이 ‘사랑의 김장김치’ 1500박스를 불우이웃에게 기부했다.

〈효성 제공〉

“공공기관에 조달우수제품 적극 홍보해 달라”

지역 중소기업, 광주 간담회서 김상규 조달청장에 요구

김상규 조달청장이 4일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우수조달업체 17개사를 초청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업체들은 다양한 요구를 김 청

장에게 제안했다. 광주전남가공공업협동조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으로 등재된 물품은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하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데, 우수제품이 없는 지역업체의 납품실적이 적어 경쟁이 힘들다”며 지역업체의 판로지원책을 요구했다.

광산업 업체인 프로맥LED는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으나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여전하다”며 “조달우수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호중공업은 “전남지역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시설 노후화와 인력확보, 사업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달청 차원의 농공단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가구 수요가 많은 초·중학교의 2단계 경쟁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 발주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농공단지 업체간 제한경쟁이 가능하다”며 “전남지역 국가기관의 발주 물품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업체간 제한경쟁을 적극 검토해 판로 지원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86.61 (+16.70) ▲ 금리 2.16% (+0.04)

▲ 코스닥 548.16 (+3.14) ▲ 환율 1115.20원 (+2.30)

금호타이어 연내 워크아웃 졸업 유력

채권단 18~20일 결정할 듯

금호타이어의 연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이 유력해졌다.

4일 금호타이어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논의했다. 채권단은 최근 종료된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종료를 승인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가운데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액의 75%를 보유하고 있는데, 두 은행이 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4.15%)이며 산업은행이 13.51%를 갖고 있다.

채권단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채권단별로 내부 협의를 거쳐 전망이다. 최종 판단은 18~20일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92.7% 찬성 파업 결의

워크아웃 졸업 앞두고 약재 우려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연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앞두고 있는 금호타이어에겐 약재로 작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3일 밤 재적 조합원 92.7%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시행된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988명 가운데 2879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772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실무교섭을 포함해 현재까지 26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

주 정의대책위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파업 수위 등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6% 인상과 임금 삭감분 환원, 임금 반납분 환원, 성과금 650만원 지급, 만60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격려금(150%+100만원) 지급, 임금 반납분 내년 환원,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제시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 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파업을 벌였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자 4억 포함, 보 1억에 월 340만원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20층중 12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원룸형
매매가 - 6,5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20층중 13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7,0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7,0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